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에 관한 연구

최 경 속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20, 30, 40, 50, 60대로 구분하였으며 자료분석대상은 총 652명이었다. 효의식 조사 설문지와 효행동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여 시부모와 친정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별 실시 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효의식 7개 요인, 효행동 7개 요인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효의식과 효행동의 관계에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효의식과 부모와의 밀접한 정서적 유대감이 효행동과 관련이 높았고, 둘째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효의식은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에 대해서 더 높았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기반을 둔 효의식은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에 대하여 높게 나타났다. 셋째 효행동은 모든 연령집단과 모든 요인에서 친정부모에 대해서 보다 시부모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 효의식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남아있으나 대부분의 의식이 양계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보여진다. 반면 효행동은 아직도 시집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체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핵심어 : 효의식 · 효행동 · 시부모 · 친정부모

서 론

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생활 형태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 구성원의 역할과 행동을 재정립할 필요성과 이들의 상호작용 형태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하여

종래의 인간 관계에 대한 의식과 행동 양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효재, 1983 ; 이광규, 1995 ; 최재석, 1985)

이와같은 가족 내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의식과 행동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

다. 즉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가 어려워진 핵가족 제도와 부모와의 공동 작업의 경험의 거의 없었던 점, 부모 자녀간의 직업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자녀 수의 감소, 시부모와 친정 부모와의 접촉 기회의 변화 및 서구적 가치관의 침투 등이 부모에 대한 의식이나 행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오래 유지해왔던 동양적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효의식이나 효행동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근간이 되는 "효"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생활 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느냐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즉 효의식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변화했다면 동일하게 변화했는지, 아니면 의식과 행동의 변화 속도나 내용이 각기 다르게 변화해왔는지, 또 연령에 따라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시부모나 친정 부모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의식과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느냐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종래 효의식과 효행동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의식과 행동을 각기 독립적으로 다루어 양자를 서로 관련시킨 연구는 별로 없었으나 도덕 판단과 도덕 행동, 또는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의식과 행동의 관계에 관련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의식이나 행동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내용이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Kohlberg(1975)는 도덕성에 대한 생각과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즉 한 개인이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옳은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Blasi(1980)는 도덕 추론과 도덕 행위의 관계를 다른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Grinter(1964), Nelson, Grindler와 Challas(1968), Medinnus(1966), Fenykes(1967) 및 Linford(1977) 등의 연구에서는 도덕 판단과 도덕 행동이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mith와 Block(1968), Schwartz(1969), Gallapher(1975)의 연구, 또 Krebs와 Rosenwald(1977) 등의 연구에서는 도덕 판단과 유혹에 견디는 도덕 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연구의 결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크게는 연구된 도덕적 행동 내용이나 영역이 각기 다르고 또 인간의 의식은 비교적 일관성을 나타내나, 행동은 주어진 상황여건이나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Schaffer(1996)는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도덕적 추리나 의식이 도덕적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이거나 주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 행동이 개인의 일관된 특성으로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정직성을 연구한 Hartshorne과 May(1928)의 연구

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즉 한 상황에서 정직했던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정직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결과와 함께 대상에 따라서도 도덕적 행동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효의식과 효행동의 관계도 단순히 의식과 행동으로 대별해서 보지 말고 효의식의 어느 측면이 효행동의 어느 측면과 관련되는지 또 효의식과 행동의 대상이 달라질 때 즉, 시부모, 친정부모나에 따라서 효의식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어느 의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의식과 효행동을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해 분리해서 조사함으로써 효의식과 효행동의 대상에서 오는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종래 우리나라 사회는 부계 사회의 남성 중심적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를 남편을 따른다(女必從夫)는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므로 친정부모에 대해서 보다도 시부모에 대한 "효"가 우선된다는 가치관이 오랫동안 지배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유교 이념이 이 끌어가던 전통사회가 아니고 가치체계가 다양화되었고 상속체계에 있어서도 아들, 딸, 또는 장자, 차자의 차이를 두지 않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이에 관련되는 효의식과 효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시가와 친가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원(1984)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친족관계가 부계제적 경향에

서 벗어나 양계제적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 주부가 시가와 친가와 의 만남이나 접촉의 빈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김경원(1989)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주부들이 비공식적 활동은 시가보다 친가와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자(1988)는 또한 도시 핵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친족관계에서 남편은 전통적인 부계 친척과 '가'의 승계 의식이 강하게 유지 존속되고 있으나 주부는 방문, 위기사 도움, 심리적 도움 등의 경우에 쌍계로 나타나고 전화, 일상적 도움, 여가 활동 등의 친족 관계에 있어서는 처계형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강력하게 내려왔던 "시가" 중심의 가치관이 친정과의 접촉이나 지원관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상당한 관심을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의식과 효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아울러 시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 그리고 친정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을 연령별로 상호 비교해 봄으로서, 현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효의식과 효행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 여성으로 자녀가 있는 어머니 총 660명이었다. 연령 집단은 20대(125명), 30대(136명), 40대(134명), 50대(137명), 60대(128명)로 구분되었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80%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78.5%가 전업 주부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시부모나 친정 부모 중 한사람은 생존해 계셨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효의식에 관련된 것과 효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된다. 각 설문지의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 효의식 조사 설문지

최경숙(1997)의 연구에서 이미 서술한 대로 효의식 설문지의 작성은 효에 관련된 문헌(김형수, 1984; 성규탁, 1993, 1994; 금장태, 1987, 1995; 박재간, 1985)을 참고로 하였다. 또 자녀를 가진 어머니와의 면담 조사를 통해 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얻어진 문항들을 예비 조사해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답하는 양식은 리커트식의 4점 척도로 대단히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대단히 반대의 4가지 중에서 한가지에 표하도록 하였다.

2) 효행동 조사 설문지

효행동 조사 설문지 작성은 예기(김형수 역, 1984), 효경(김정진 역, 1987) 등 효에 관련된 고전 문헌과 성규탁(1995), 서병숙과 이신숙(1991), 김태현(1981)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또 여성들에게 본인이 실제로 행한 효행동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의 진술을 받아 이를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작성된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지의 내용이 모호한 것, 중복

되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실제로 했거나 현재에도 하고 있는 효행동을 기술하는 총 4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대답방식은 4점 척도의 리커트 방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네가지 중에서 하나에 표하도록 하였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문지 앞에 각기 시부모 또는 친정 부모를 명기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효의식 또는 효행동이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사실시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효의식 조사 설문지와 효행동 조사 설문지를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 별로 약 130명씩을 임의 표집하여 조사 대상 660명에게 실시하였다. 피조사자를 조사원이 개별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는 조사원이 직접 기록하였다. 면접실시 소요 시간은 약 4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성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8명의 조사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65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의식과 효행동에 관한 설문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효의식과 효행동에 관한 설문을 각기 독립적으로 요인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차 요인 분석(이순목, 1995)을 하였는

때, 1차 요인 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varimax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 중에 신뢰도 계수가 떨어지고 형태 계수가 0.3이하인 효의식 설문 7개 문항과 효행동 설문의 8개문항이 제외되었다. 2차 요인 분석에서는 1차 요인 분석 결과 제외된 문항을 뺀 효의식 설문 33개 문항과 효행동 설문 37문항 각각에 대하여 공통 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으로 주축 분해법을 적용하여 varimax 회전을 하였다. 2차 요인 분석에서는 1차 요인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효의식 7개요인, 효행동 7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별 해당 문항은 형태 계수가 0.3이상인 경우만을 선정하여 요인별 신뢰도로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효의식과 효행동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효의식 요인과 효행동 요인과의 관계를 단순 상관 분석, 다중 표준 회귀 분석 및 정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한 차이와 연령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하여 시부모, 친정부모(2)×조사 대상자의 연령 집단(5)의 2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결과 및 해석

1. 요인 분석 결과

1) 효의식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효의식 조사의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았다(최경숙, 1997).

요인 분석 결과 효의식 40개 문항 가운데 33개 문항들이 7개 요인으로 묶여졌다. 7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57-.79로 산출되었다. 설명 비율로 보면 요인 I이 22%로 가장 높고 요인 II에서부터 요인 VII까지는 각이 10%-15%로 비슷한 설명 비율을 보였다.

각 요인에 포함된 설문 내용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설문들의 내용으로 보아서 각 요인에 묶여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요인 I에 포함된 문항을 보면 효도는 인간의 도리다, 또는 효도를 함으로써 본인과 가족 모두가 좋게 된다는 것을 믿는 효의식이라고 해석된다. 요인 II는 부모와의 밀접한 유대 관계와 애정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III은 과거 우리 문화 속에서 전승되어 온 효의식이라고 해석된다. 요인 IV는 소극적인 의미의 효의식으로 자기 중심적, 즉 자신이 잘되는 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하는 의식 요인이었다. 요인 V에 포함된 문항을 보면 이 요인은 연민이나 애정에 기반을 둔 정서적 봉양으로 해석된다. 요인 VI은 부모에게 물질적 경제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보는 효의식으로 해석된다. 요인 VII은 효도를 채면 때문에 한다고 보거나 효도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보여진다.

표 1. 효의식에 대한 요인 구조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α	I .79	II .72	III .78	IV .76	V .67	VI .61	VII .57
21	효도해야 가문 융성		.537						
13	효자(녀)는 출세함		.536						
16	내가 효도해야 자녀 배움		.499						
6	부모 몸양은 자녀 책임		.493						
14	효도는 가족 결속 다짐		.476						
1	부모 돌봄은 당연		.475						
2	도리중에 효가 제일		.466	.373					
17	부양시 많이 배움		.438	.345					
20	효도는 자신 뿌리 존경		.436						
33	심청전은 효도의 표본		.416						
11	효도시 사회적 칭찬		.350						
4	부모가 내게 제일 중요			.810					
5	배우자 보다 더 중요			.648					
3	부모 마음에 의지			.449					
25	부모가 자랑스럽다			.364					
38	효도는 아들이 하는 것				.751				
40	효도는 말아들이 하는 것				.745				
39	형제하는 만큼만 효도				.679				
19	나의 바른 삶이 효도					.755			
18	내가 잘되는 것이 효도					.665			
22	자식 건강이 효도					.592			
29	부모 선택해 마음 아픔						.685		
31	마음편케 해드림이 효도						.603		
30	몸편케 해드림이 효도						.493		
28	부모 고생했으니 잘해야						.328		
35	육망채워드림이 효도							.794	
34	경제여유주는 것이 효도							.483	
37	원대로 해드림이 효도							.452	
24	준만큼 효도받아야							.321	
9	부모가 부담됨								.641
7	효도는 부담됨								.563
12	이목 때문에 효도한다				.302				.447
10	노부모 부양은 국가책임								.344
	고유치		2.96	2.00	1.92	1.92	1.81	1.56	1.36
	설명 비율		.22	.15	.14	.14	.13	.12	.10

2) 효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효행동 조사의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최경숙, 1998).

요인 분석 결과 효행동 문항 45개 문항 중에 37개 문항이 7개 요인으로 묶여져 추출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77에서 .89사이의

표 2. 효행동에 대한 요인 구조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α	I .89	II .81	III .77	IV .81	V .80	VI .82	VII .83
28	목욕 도움		.765						
26	부모방/침구 정돈		.695						
29	의복 손질/빨래해드림		.667						
25	대소변 도움		.648						
27	장보기/식사 준비		.588						
24	길을 때 부축		.585						
30	부모 심부름		.582			.309			
31	부모의 말상대		.450			.358			
22	부모 편찮을 때 간호		.431	.352					.326
34	심심하지 않게 일거리 제공		.336						
15	용돈드림			.664					
20	생신 명절 때 돈드림			.567					
14	생활비 드림			.525			.416		
21	보약 해 드림			.524					
18	여행 경비 제공			.518					
17	부모 필요품 구입함			.502					
36	생신 차려 드림			.452					
19	제사 때 돈을 드림			.449					
6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함				.725				
1	부모 수저든 후 식사				.664				
3	부모께 존대말				.630				
5	말대답 안함				.474				
7	좋은 음식 먼저 권함				.470				
2	부모 뵈면 큰절				.421				
38	의견 다를때 부모 뜻대로					.747			
37	집안일 결정시 의견 청취					.697			
39	배우자 보다 부모 뜻 존중					.631			
9	부모일 우선 처리					.435			
13	부모 모시고 산다	.334					.821		
16	부모 전적으로 부양						.730		
42	부모와 가까운 곳 거주					.314	.476		
4	매일 문안						.345		
44	부모앞 자신 건강 걱정 안함							.837	
45	부모앞 힘겨움 내색 안함							.831	
43	자식 곤란 부모 못 알게							.587	
40	부모와 외식								.791
41	부모와 나들이								.748
	고유치		4.26	2.96	2.68	2.55	2.42	1.94	1.74
	설명 비율		.229	.159	.144	.138	.130	.105	.094

값을 보이고 있다.

설명 비율로 보면 요인 I이 22.9%로 가장 높고, 요인 II에서부터 요인 VII까지는 9%~16%의 설명 비율을 보인다.

요인 I에 포함된 문항을 보면 侍奉의 효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부모를 가까이 모시면서, 부모를 위한 일차적인 개인적 보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인 II는 경제적 봉양의 효도로서 부모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궁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보살펴 드리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요인 III에 포함된 문항을 보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의적인 행동으로 해석된다. 요인 IV는 부모의 뜻을 살피서 따르는 承志의 효행으로 해석된다. 즉,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효행이다. 요인 V는 부모와 거리상으로 가깝게 살면서 봉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면서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효행동이다. 요인 VI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음으로서 부모를 심리적으로 편안히 해드리는 효행으로 해석된다. 요인 VII은 부모에 대해 주로 심리적, 정서적 봉양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는 효행으로 해석된다.

2. 효의식 요인과 효행동 요인과의 관계

1) 효의식 요인과 효행동 요인과의 상관관계

효의식 요인별 효행동 요인과의 Pearson 적률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효의식 요인들과 효행동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기는 하나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의식 요인 I은 효행동 요인 I, II, III, IV, V에서 .20에서 .35에 이르는 상관 계수 값을 보이고 있고, 효의식 요인 II가 효행동 요인 I과 IV에서 각각 .22, .33을 보이고 있을 뿐, .20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효의식 요인과 효행동 요인은 없었다. 따라서 상관계수로 보면 효의식 요인 I, 즉 효도를 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이 좋게 된다거나 효도는 인간의 도리라고 믿는 경우 효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효의식 요인과 효행동 요인과의 상관관계

효행동 효의식 요인	요인	I	II	III	IV	V	VI	VII
I		.302***	.205***	.357***	.345***	.214***	.200***	.073*
II		.220***	.135***	.186***	.330***	.188***	.138***	.116***
III		.061*	.026	.148***	.049	.094**	.109***	-.012
IV		.104***	.095**	.146***	.162***	.098**	.101***	-.005
V		.146***	.149***	.179***	.187***	.091**	.148***	.005
VI		.094***	.083***	.105***	.126***	.138***	.112***	.042
VII		-.082***	.027	-.074*	-.126***	-.027	-.006	-.028

* p<.05, ** p<.01, *** p<.001

2) 효행동 요인에 대한 효의식 요인의 다중 회귀 분석

효의식 요인과 효행동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효의식으로 효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효행동을 예언하는데 있어 효의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연령층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어머니의 연령을 포함해서 효의식 요인 7개 요인을 표준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표준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의식 전체와 연령으로 효행동을 10%이상 설명할 수 있는 효행동 요인은 I(10.5%), III(15.3%), IV(13.8%)로 나타났다. 효의식 요인 별로 볼 때, 효의식 요인 I은 효행동 요인 VI을 제외한 모든 행동 요인을 설명해주고 효의식 요인 II는 효행동 요인 I, IV, V, VII을, 효의식 요인 III은 효행동 요인 III과 VI를, 효의식 요인 V는 효행동 요인 VI, VII, 그리고 효의식 요인 VI은 효행동 요인 V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다. 효의식 요인 IV와 VII은 효행동 어느 요인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효의식 I, II가 효행동 요인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효의식 요인군과 효행동 요인군과의 정준상관 관계 분석

효의식 요인군을 독립변인군으로, 효행동 요인군을 종속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 관계 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 군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bda = .72$, $p < .001$).

정준 상관 분석 결과 도출된 7개의 정준 함수 중 3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공유 변량 분석 결과 정준 함수 1이 종속 변인의 7.6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함수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준 함수 1의 정준 부하량과 정준 부하량을 검토하면(표 6), 효의식

표 4. 효행동 요인에 대한 효의식 요인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효행동 요인	I		II		III		IV		V		VI		VII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I	.362	.212***	.0186	.125***	.380	.257***	.430	.239***	.268	.127***	.122	.065	.180	.087*
II	.114	.087**	.047	.041	-.004	-.003	.277	.200***	.153	.094**	.072	.050	.196	.122***
III	.016	.015	-.024	-.026	.104	.115***	.106	.054	.076	.058	.090	.078*	-.024	-.019
IV	-.030	-.020	-.002	-.001	.022	.017	.104	.009	.031	.017	.038	.023	-.083	-.046
V	-.015	-.008	.074	.049	.064	.430	-.063	-.035	-.076	.035	.151	.079*	-.155	-.074*
VI	-.017	-.014	-.011	-.010	-.055	-.050	.003	.002	.109	.070*	.011	.008	-.064	.042
VII	-.048	-.039	.067	.063	-.052	-.050	-.086	-.067	-.033	-.022	.004	.003	-.012	-.008
연령	.007	.160***	.004	.093**	.007	.172***	-.003	-.051	.002	.028	.007	.131***	-.006	-.103***
R ²	.1150		.0488		.1583		.1432		.0584		.0669		.0298	
Adj R ²	.1054		.0428		.1530		.1377		.0523		.0609		.0232	

* $p < .05$, ** $p < .01$, *** $p < .001$

요인군에 대한 정준 부하량의 결과에서 독립 정준 변인 1은 효의식 요인 1, 2와 상관이 크고, 4, 5, 6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정준 변인 1은 효행동 요인 4, 3, 1과 상관이 높고, 5, 6, 2요인과의 상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 정준 변인 I은 바로 효의식 요인 I, II라고 해석할 수 있고 종속 정준 변인 I은 효행동 요인 I, III, IV라 할 수 있다. 정준 분석 결과, 독립 정준 변인 1은 효행동 요인군들 중에서 요인 4, 3, 1과 상관 관계가 .30이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종속 정준 변인 1은 효의식 요인 중 요인 1과 2와의 상관이 .30이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3. 시부모·친정 부모에 대한 효의식과 효행동

1) 시부모·친정 부모에 대한 효의식

효의식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해서 얻어진 요인들이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효의식의 각 요인별, 연령집단별, 시부모·친정 부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을 보면 요인 V가 가장 높고, 요인 IV, 요인 I, 요인 II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요인 III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낮은 요인은 요인 VII, 요인 VI의 순이었다. 따라서 연민이나 애정에 기반을 둔 정서적 봉양의식과 자신이 잘되는 것이 효도라는 의식이 높았고, 효도는 아들이 하는 것이라 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낮게 나타났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간의 효의식을 평균에서 비교해 보면, 정서적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II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시부모보다 친정 부모에 대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각 요인별로, 연령집단에 따라 시부모·친정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시부모·친정 부모)×5(연령집단)의 변량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연령집단별 단순 주효과 분석 및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 I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효의식도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며 20대에서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해서 차이가 없고 30대 이후에서는 시부모에 대해서 효의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30대: $F(1,135)=7.69$, $p<.001$, 40대: $F(1,133)=7.40$, $p<.01$,

표 5. 정준 상관 계수와 유의도

	정준상관 계수	표준오차	정준 상관 자승	근사 F	분자 df	분모 df	유의수준
1	0.468	0.023	0.219	8.005	49	5751	0.0001
2	0.207	0.028	0.043	2.778	36	4978	0.0001
3	0.142	0.029	0.020	1.990	25	4214	0.0024
4	0.126	0.029	0.016	1.637	16	3468	0.0521
5	0.075	0.029	0.006	0.884	9	2764	0.5390
6	0.035	0.030	0.001	0.385	4	2274	0.8197
7	0.011	0.030	0.000	0.131	1	1138	0.7180

50대: $F(1,136)=13.67$, $p<.001$, 60대: $F(1,127)=10.87$, $p<.001$). 즉 친정 부모에 대해서 보다 시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효의식이 30대 이후에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II는 정서적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전체적으로 60대에 가장 높았으며, 모든 연령 집단에서 시부모 보다 친정 부모에 대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F(1,124)=33.80$, $p<.001$, 30대: $F(1,135)=22.34$, $p<.001$, 40대: $F(1,133)=$

4.28, $p<.05$, 50대: $F(1,136)=8.16$, $p<.01$, 60대: $F(1,127)=8.77$, $p<.01$).

요인 III은 효는 아들이 하는 것이라는 전습으로 내려오던 효의식으로 이 요인에서도 60대가 가장 높았으며 20대($F(1,124)=11.33$, $p<.01$)와 60대($F(1,127)=4.07$, $p<.05$)에서 친정 부모 보다 시부모에 대해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시부모와 친정부모간에 차이가 없었다.

요인 IV는 소극적인 의미의 효의식으로 자신이 잘되는 것이 효도라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20대($F(1,124)=10.27$, $p<.01$)에

표 6. 정준함수 1의 정준 부하량과 교차 정준 부하량

	정준 함수 1			
	정준 계수	표준화된 정준 계수	정준 부하량	교차정준 부하량
효의식 요인군				
I	1.825	0.747	0.929	0.435
II	0.485	0.255	0.677	0.317
III	0.447	0.298	0.279	0.131
IV	0.060	0.028	0.407	0.191
V	0.029	0.012	0.493	0.231
VI	-0.061	-0.034	-0.318	0.149
VII	-0.303	-0.173	-0.259	-0.121
Redundancy Index				0.062
효행동 요인군				
I	0.396	0.272	0.674	0.315
II	-0.152	-0.091	0.410	0.192
III	0.756	0.454	0.798	0.374
IV	0.705	0.512	0.812	0.381
V	0.061	0.053	0.511	0.239
VI	0.207	0.158	0.467	0.219
VII	-0.162	-0.136	0.178	0.083
Redundancy Index				0.076

서만 시부모 보다 친정 부모에 대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봉양으로서의 요인 VI도 20대에서만 친정 부모에 대해서 더 높고 ($F(1,124)=11.44, p<.001$), 체면, 부담에 대한 효의식으로 요인 VII은 전반적으로 30대에 가장 높고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시부모에 대해 친정부모

표 7. 시부모·친정 부모에 대한 연령집단별 효의식 7개 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연 령 집 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I M	3.11	3.14	3.25	3.19	3.28	3.21	3.43	3.33	3.56	3.48	3.33	3.27
계	3.13		3.22		3.25		3.38		3.52		3.30	
SD	(.40)	(.35)	(.37)	(.37)	(.38)	(.37)	(.36)	(.41)	(.37)	(.40)	(.40)	(.40)
계	(.38)		(.37)		(.37)		(.39)		(.39)		(.40)	
II M	2.96	3.27	3.03	3.21	3.04	3.12	3.09	3.22	3.28	3.40	3.08	3.24
계	3.11		3.12		3.08		3.16		3.34		3.16	
SD	(.55)	(.49)	(.50)	(.49)	(.54)	(.48)	(.54)	(.55)	(.49)	(.48)	(.53)	(.50)
계	(.54)		(.50)		(.51)		(.55)		(.48)		(.52)	
III M	1.66	1.51	1.68	1.68	1.63	1.67	1.72	1.70	2.07	1.95	1.75	1.70
계	1.58		1.68		1.65		1.71		2.01		1.73	
SD	(.56)	(.56)	(.66)	(.66)	(.57)	(.63)	(.68)	(.61)	(.75)	(.71)	(.66)	(.65)
계	(.56)		(.64)		(.60)		(.65)		(.73)		(.65)	
IV M	3.44	3.59	3.61	3.61	3.53	3.51	3.56	3.56	3.67	3.66	3.56	3.59
계	3.52		3.60		3.52		3.56		3.67		3.57	
SD	(.49)	(.46)	(.48)	(.48)	(.47)	(.46)	(.44)	(.46)	(.44)	(.43)	(.46)	(.46)
계	(.48)		(.46)		(.46)		(.45)		(.43)		(.46)	
V M	3.55	3.66	3.62	3.62	3.59	3.57	3.67	3.66	3.73	3.78	3.62	3.66
계	3.61		3.60		3.58		3.66		3.75		3.64	
SD	(.43)	(.42)	(.40)	(.40)	(.39)	(.41)	(.39)	(.44)	(.37)	(.31)	(.40)	(.41)
계	(.43)		(.40)		(.40)		(.41)		(.34)		(.40)	
VI M	2.52	2.65	2.56	2.63	2.51	2.55	2.61	2.68	2.87	2.85	2.61	2.67
계	2.59		2.60		2.53		2.65		2.86		2.64	
SD	(.46)	(.50)	(.50)	(.54)	(.53)	(.49)	(.51)	(.54)	(.61)	(.63)	(.54)	(.55)
계	(.49)		(.52)		(.51)		(.53)		(.62)		(.55)	
VII M	2.31	2.13	2.40	2.31	2.25	2.18	2.17	2.18	2.26	2.25	2.28	2.21
계	2.22		2.36		2.21		2.17		2.26		2.24	
SD	(.54)	(.53)	(.52)	(.58)	(.55)	(.54)	(.57)	(.59)	(.62)	(.57)	(.56)	(.57)
계	(.54)		(.55)		(.54)		(.58)		(.59)		(.56)	

보다 20대 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F(1,124)=18.92, $p<.001$).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효의식에서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의식(요인 I, 요인 III)에서는 시부모에서 높고, 정서적 효의식(요인 II)에서는 친정부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었을 때는 정서적으

로 관계된 효의식이 친정 부모에 대해 높다가 나이가 들면서 친부모·시부모에 대한 차이가 없어지거나 시부모에 대하여 더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8. 시부모, 친정부모에 대한 연령집단별 효행동 7개 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연 령 집 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시부모	친정
I M	2.47	2.41	2.62	2.35	2.72	2.39	3.00	2.47	3.19	2.60	2.79	2.44
계	2.44		2.48		2.55		2.73		2.89		2.62	
SD	(.62)	(.60)	(.65)	(.74)	(.58)	(.64)	(.61)	(.66)	(.55)	(.72)	(.65)	(.68)
계	(.61)		(.71)		(.63)		(.69)		(.70)		(.69)	
II M	2.92	2.68	3.08	2.64	3.09	2.69	3.22	2.78	3.31	2.76	3.12	2.71
계	2.80		2.87		2.89		3.00		3.03		2.92	
SD	(.51)	(.54)	(.54)	(.70)	(.47)	(.61)	(.48)	(.58)	(.45)	(.58)	(.51)	(.61)
계	(.54)		(.66)		(.58)		(.57)		(.59)		(.60)	
III M	3.13	2.39	3.26	2.65	3.19	2.68	3.38	2.87	3.49	3.08	3.29	2.73
계	2.76		2.96		2.93		3.12		3.28		3.01	
SD	(.40)	(.55)	(.43)	(.57)	(.46)	(.50)	(.39)	(.59)	(.46)	(.58)	(.44)	(.60)
계	(.60)		(.58)		(.54)		(.56)		(.56)		(.59)	
IV M	2.72	2.55	2.75	2.35	2.63	2.09	2.87	2.24	3.13	2.48	2.81	2.34
계	2.63		2.55		2.36		2.56		2.80		2.58	
SD	(.65)	(.57)	(.66)	(.63)	(.72)	(.65)	(.76)	(.73)	(.64)	(.65)	(.71)	(.67)
계	(.62)		(.67)		(.73)		(.81)		(.72)		(.73)	
V M	2.29	1.98	2.23	1.83	2.26	1.76	2.45	1.83	2.96	1.83	2.43	1.84
계	2.14		2.03		2.02		2.14		2.40		2.14	
SD	(.81)	(.69)	(.85)	(.75)	(.79)	(.73)	(.90)	(.74)	(.87)	(.68)	(.88)	(.72)
계	(.77)		(.82)		(.80)		(.88)		(.96)		(.86)	
VI M	2.82	2.60	2.97	2.68	2.85	2.72	3.07	2.83	3.21	3.13	2.98	2.79
계	2.71		2.83		2.78		2.95		3.17		2.89	
SD	(.65)	(.67)	(.68)	(.80)	(.73)	(.85)	(.79)	(.78)	(.69)	(.69)	(.72)	(.78)
계	(.67)		(.75)		(.79)		(.79)		(.69)		(.76)	
VII M	2.75	2.52	2.70	2.46	2.59	2.45	2.61	2.37	2.66	2.30	2.66	2.42
계	2.64		2.58		2.52		2.49		2.48		2.54	
SD	(.76)	(.81)	(.82)	(.87)	(.75)	(.85)	(.87)	(.87)	(.82)	(.87)	(.80)	(.86)
계	(.79)		(.85)		(.80)		(.88)		(.86)		(.84)	

2) 시부모·친정부모에 대한 효행동

효행동 요인별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한 효행동 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연령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평균으로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효행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모든 요인에서 어느 연령 집단에서든 친정 부모 보다 시부모에 대한 효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시부모, 친정 부모에 대한 연령 집단별 변량 분석 및 사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요인 I은 侍奉의 효행동으로서 평균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부모·친정 부모에 대한 효행동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 에서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간에 侍奉의 효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30대($F(1,135)=12.77, p<.001$), 40대($F(1,133)=27.04, p<.001$), 50대($F(1,136)=76.11, p<.001$), 60대($F(1,127)=68.34, p<.001$)에서는 시부모에 대한 효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II는 경제적 봉양의 효행으로 변량 분석 결과 모든 연령 집단(20대: $F(1,124)=18.19, p<.001$, 30대: $F(1,135)=41.56, p<.001$, 40대: $F(1,133)=50.46, p<.001$, 50대: $F(1,136)=63.10, p<.001$, 60대: $F(1,127)=114.64, p<.001$)에서 친정 부모보다 시부모에 대한 효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요인 III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효도라 할 수 있는데 요인 II에서와 같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시부모에 대한 효행동이 친정 부모에 대한 것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F(1,124)=217.03, p<.001$, 30대: $F(1,135)=143.40, p<.001$, 40대: $F(1,136)=125.58, p<.001$, 50대: $F(1,136)=125.87, p<.001$, 60대: $F(1,127)=83.00, p<.001$).

요인 VI에서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承志의 효행으로 이 요인에서도 20대($F(1,124)=7.18, p<.001$), 30대($F(1,135)=38.20, p<.001$), 40대($F(1,133)=48.32, p<.001$), 50대($F(1,136)=84.51, p<.001$), 60대($F(1,127)=93.82, p<.001$) 모두 친정 부모에 대해서 보다 시부모에 대해서 승지의 효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V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 부모에 대한 전적인 봉양으로 해석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위의 다른 요인에 대한 결과에서와 같이 20대($F(1,124)=12.00, p<.001$), 30대($F(1,135)=15.70, p<.001$), 40대($F(1,133)=38.60, p<.001$), 50대($F(1,136)=40.54, p<.001$), 60대($F(1,127)=141.99, p<.001$) 모두 시부모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요인 VI 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는 효행동 요인으로 40대와 60대에서는 친정 부모가 시부모에 대한 효행동이 차이가 없었으나 20대($F(1,124)=7.15, p<.001$), 30대($F(1,135)=13.85, p<.001$), 50대($F(1,137)=8.01, p<.001$)에서는 시부모에 대하여 유의하게 효행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VII은 밖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요인으로 연령 집

단파의 상호작용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부모·친정 부모간에는 유의한 차이($F(1,651)=42.35, p<.001$)가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시부모에 대한 효행이 친정 부모에 대한 효행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효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요인 I에서 20대, 요인 VI의 40대, 60대에서만 시부모·친정 부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모든 요인, 모든 연령 집단에서 시부모에 대한 효행동이 친정 부모에 대한 효행동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전반적으로 볼 때, 효의식과 효행동의 상관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효에 관련 되어서 만이 아니라 도덕 의식과 도덕 행동과의 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일반적인 현상과도 일치된다고 보여진다(Blasi, 1980). 즉, 도덕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도덕 의식만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는 점(Shaffer, 1995) 효 행동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효의식을 고취시키기만 하면 효행동은 당연히 이끌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효교육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효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의식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효행동자체를 교육시키거나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또 본 연구 결과, 효의식 요인 I, II와 효행동 요인 I, II, IV가 서로 관

계가 있다는 것이 상관계수, 다중 회귀 분석, 및 정준 상관 분석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효의식 요인 중 전통적, 규범적 효의식인 요인 I이 거의 모든 효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강한 것(효의식 II)이 효행동 요인 I과 IV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효의식이 과거 사회와는 많이 달라진 현대 사회에서도 효행동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식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의식은 다른 의식 요인들과 비교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제례나 친척 모임 등을 통해서 또 부모와의 상호 교류 속에서 비교적 어렸을 때 부터 몸에 익힌 의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요인의 문항 내용을 보면 최정숙(1997) 연구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효를 행해야 나 자신뿐 아니라 자식이나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다분히 공리적인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그것이 지금 당장 이익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리적인 것이다. 도덕의 본질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타인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이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타적 행동을 도덕적으로 보는 것은 사물이나 인간 관계를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종 전체의 공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효행동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인과 관계를 보아야만 하는 효의식이 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효의식의 기본도 도덕원리의 기본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효의식 요인 II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

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부모와의 애착으로 해석된다. 애착은 Bowlby (1958)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생의 발달에서 사회적 관계, 정서 및 성격 그리고 인지 발달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Ainsworth, 1978; Cohn, 1990; Cassidy, 1988; Main, 1973).

이러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효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 때 그만큼 부모를 가까이 느끼고 부모의 어려움이나 상태에 민감해져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효의식 요인 II 즉 부모와의 애착도 효의식 요인 I과 같이 생의 발달에서 상당히 일찍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 방법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e, 1990; Hetherington & Parke, 1993; Owen & Cox, 1998; Main & Solomon, 1990).

결론적으로 효의식과 효행동의 관계는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방법이나 가정 교육에 의해 매우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혀온 의식이 효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의식을 전반적으로 볼 때, 시부모·친정 부모 관계없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 싶고 쇠약해진 부모 모습에 가슴 아프게 느낀다는 정서적 효의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효가 부담이 된대거나 아들이 하는 것이라라는 부정적 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효의식 요인이 점수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효의식의 바람직한 일면이라고 소박하게 해석할 수 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

도 배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관습적, 전통적, 규범적 효의식 즉, 요인 I에서만 유일하게 친정 부모 보다 시부모에 대한 효의식이 30대에서 부터 60대에 이르기 까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효의식의 대상은 시부모에 한정 시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효의식에 아직도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효의식 요인 II에서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친정 부모에 대한 효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있다. 즉, 부모와의 밀접한 유대, 마음의 의지로서의 친정 부모가 높게 나타나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도 친정 부모가 이들의 정서적 지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더우기 20대 여성의 경우 시부모·친정 부모에 대하여 다른 연령 층의 여성들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긍정적인 효의식에서는 시부모 보다 친정 부모에 대해서 더 높고 부정적인 효의식에서는 친정 부모 보다 시부모에 대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이후의 여성들 보다 20대 여성들이 시집과 관계된 연륜이 짧고 시집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특성으로 해석된다.

효행동은 거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또 거의 모든 요인에서 시부모에 대한 것이 친정 부모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효의식에서는 많은 경우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 대해서나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 행동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시부

모에 대해서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효행동 자체가 가부장적, 또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이동원(1984)과 이광자(1988)가 우리나라 친족 관계가 부계적인 관계에서 양계적 또는 쌍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효행동은 아직도 부계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효의식이나 효행동 모두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부모에게나 친정 부모에게나 관계없이 모두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40대 주부의 경우 효행동 요인 중에서 부모의 뜻에 따른다(요인 IV)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또 부모를 모시고 산다, 전적으로 부양한다(요인 V)도 30, 40대 경우 다른 연령 집단 보다 떨어지다가 다시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30대, 40대가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져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0대, 60대에 다시 높아지는 것은 본인들의 생활 자체가 30, 40대 보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과 본인 스스로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노년기에 들어선 부모에 대한 연민의 정이 부모에 대한 효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효의식에서도 나타나 40대에서는 효의식 요인 II, 즉,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배우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또 경제적 지원 관련 효의식도 약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효의식에서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하여 일부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효행동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시부모에 대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송애와 조병은(1991)의 연구에서 부양의무감에서는 시가와 친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양행동에서는 시가에 더 높은 것보다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효의식은 시부모와 친정 부모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양계적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변화 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거나 효행동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행동 자체가 상황 변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고 보았을 때 이동원(1984)이나 이광자(1988)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친족 관계가 점차 변화, 확대 되면서 효행동도 친가·시가에 대한 차이가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나 의식 또는 행동양식 중에서 의식이 먼저 변화하고 행동양식은 그 변화가 의식 보다는 비교적 뒤에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에 의해서 제도나 법이 변경되었을 때 법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는 행동 보다는 과거의 행동양식을 더 따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변경된 법이나 제도가 의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과 부담이 수반될 때는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효의식과 효행동의 관

계에 관한 결과로 볼 때, 효의식, 효행동 모두 전체 도덕 체계속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즉, 효의식 요인이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효의식이라 할 때 도덕성의 기본과 일치된다고 보여진다는 의미에서 전체 도덕의 일환으로서 효의식이나 행동을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효의식과 행동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도덕판단과 도덕행위의 관계에서와 같이 의식과 행동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의식과 행동을 모두 고취시키거나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효의식과 효행동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은 특히 친정부모를 대상으로 두드러지지만 부모와의 강한 애정관계가 지속적이고 폭넓은 효행동을 이끄는 바탕이 된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금장태.(1987).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금장태.(1995).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서울:전통문화연구회
- 김경현.(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송애,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가정관리학회지**, 18, 303-322.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간.(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회적 부양기능. **한국노년학**, 5, 54-61.
- 서병숙, 이식숙.(1991).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21.
- 성규탁.(1993). 한국인의 부모부양이념에 관한 연구:연령층에 따른 효행동기 분석(연구 보고서). 춘천:한림과학원.
- 성규탁.(1994). 현대한국인이 인식하는 효:척도와 자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성규탁.(1995). **새 시대의 효**. 연세대학교 출판부.
- 禮記(上下).(1984). 김형수(역해). 서울:한국교육출판사.
-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시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I:시가 및 친가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노총** 44, 7-36.
- 이순목.(1995). **요인분석 I**, 학지사.
- 이효재.(1983).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최경숙.(1997). 여성의 효의식의 세대간 차이와 아동양육과의 관계.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제27집, 11-62.
- 최경숙.(1998). 모친의 효행과 자녀 효교육과의 관계. **생활과학(성균관대학교)**, 창간호.
- 최재석.(1985). **한국 가족 연구**, 서울:일

지사.

孝經(1987). 김정진(역) 서울:형설출판사.

Ainsworth, M.D.S.(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G. Rosenblatt, R.A. Hinde, C. beer & M. Busnel(Eds.).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 9. Orlando, FL:Academic Press.

Blasi, A.(1980). Bridging more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5.

Bowlby,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6-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Fenyes, C.(1967). Moral judgment and appropriateness for self-blame and resistance to temptation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niversity Microfilm No. 67-11,679)

Gallagher, M.J.(1975). A Comparison of Ho-gan's and Kohlberg's theories of moral development (Doctorial dissertation, Co lumbia University, 1975).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6, 2446B-2447

B(University Microfilm, 75-25, 680.)

Ginder, R.E.(1964). Relations between behavioral and cognitive dimensions of consci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35, 881-891.

Haan, N.(1964). *Coping and defending: Processes of self-environment organ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Haan, N., Smith, M., & Block, J.(1968). Moral reasoning of young adults: Political-social behavior, family background, and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83-201.

Hartshorne, H. & May, M.A.(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Vol. 1. Studies in deceit*. New York: Macmillan.

Hetherington, E.M. & Parke, R.D.(1983).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 (4th ed.). New York: McGraw Hill.

Kohlberg, L.(1975).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 education. *Phi Delta Kappa*, June, 670-677.

Krebs, D., & Rosenwald, A.(1977). Moral reasoning and moral behavior in conventional adults. *Merrill-Palmer Quarterly*, 23, 77-87.

Kurtines, W.M. & Grwirtz, J.L.(1991). (Eds.). *The Handbook of Moral Behavior ad Developmen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Vol.1-3).

-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urtines, W.M. & Gewirtz, J.L.(1995). (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Needham Heights, Mass: A Simon & Schuster Co.
- Linford, J.L.(1977). *Conscious and unconscious moral judgment, moral character and conventional conduct in adolescence*(Doctori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niversity Microfilm, 77-27, 601.)
- Main, M.(1973). *Exploration, Play and Level of Cognitive Functioning as Related to Child-mother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 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in, M. & Solomon, J.(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Greenberg, D. Cicchetti, & M. Cummings(Eds.). *Attachment during the Preschool Years*. Chicago Press.
- Medin, G.R.(1966). Behavioral and cognitive measures of conscience develop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9, 147-150.
- Nelson, E.A., Granger, R. E. & Muttterer, M.L.(1969). Source of variance in behavioral measures of honesty in temptation situations: Method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 265-279.
- Owen, M. & Cox. M.(1988). Maternal employmen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E. Gottfried & A.W. Gottfried(Ed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Plenum.
- Parke, R.D.(1990). In search of fathers: A narrative of enempirical journey. In I. Sigel & G.Brody(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153-188, Hillsdale, NJ: Erlbaum.
- Schaffer, H.R.(1996). *Social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Inc.
- Schwartz, S.H.(1968). Words, deeds, and the perception of consequences and responsibility in action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232-242.

Filial Piety for Parents and Parents in law in Korean married females.

Kyoung-Sook Choi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Choi, Kyung-sook. *Filial Piety for parents and parents in law in Korean married femal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8, 5, 128-147.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act in filial piety for parents and parents in law in 660 Korean married females from twenties to sixties. The questionnaires for the concept of filial piety(40 items) and for filial act(45 items) were constructed. The data was analyzed in terms of factor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raditional and normative concept of filial piety, and intimate emotional relationships with parents were highly related to filial act. Second, filial act for parents in law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ilial act for parents through all factors in all age groups.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to show that the concept of filial piety is changing toward both paternal and maternal side while filial act is still strongly affected by Korean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Key word : Filial piety · Filial act · Parents · Parents in law